

웨신, 웨민대에서 “36명이 전도사고시” 시행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명예도, 돈도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5월 3일(금)오후 1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1-11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웨민대) 2층 강당에서 2013년 전도사고시에 응시 결과 높은 점수가 예상되어 전원 합격이 예상되고 있다.

웨신총회 총회고시부 주관으로 고시부 서기 이영봉 목사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고시위원 남궁열 목사가 기도, 고시부장 장창운 목사는 사도행전 7:54~60절을 인용 “영혼을 주께 맡겨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에서 장창운 고시부장은 “장차 한국교회와 한국교계를 이끌며 짊어질 위대한 일꾼들이 여기 모였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들로 불러주셨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노회, 총회를 이끌어 가며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지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주길” 주문했다.

구원이란 죄를 전제로 하여 형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최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다고 했다.

또한 고시부장 장창운 목사는

진정한 사명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요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역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다. 전도사 고시에 응한 여러분은 모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이 시대에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장창운 고시부장은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한 보수주의 명문신학 웨스트minster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출신으로서, 또 한국교회계의 표준이며 명품목사를 배출하는 웨신총회에 소속한 여러분은 긍지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중앙 한동숙 이사장, 좌측 순으로 박우제 교수, 총무 신언창 목사, 고시부장 장창운 목사, 우측 중경총회장 임철환 목사, 고시위원 남궁열 목사

이어 예정웨신 총무 신언창 목사는 “광고에서 전도사 고시에 응시한 이들을 위로하고 축하를 전하면서 웨신총회는 표준총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소속할 노회를 결정하고, 총회를 섬기는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사역에 충실히 이행하는데 힘써달라”는 부탁과 중경총회장 임철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에 전도사고시가 시행되고, 3부 면담에 이어 웨스트minster 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는 “고시에 응시한 재학생들을 위로와 격려로서 축하했다. 그러면서 한 이사장은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나는 간 곳 없고,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삶을 여러분은 선택했다. 이제부터 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다시 가다듬고 주만 바라보고 100년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님 한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은 고난도, 기쁨도,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버려야 한다면서 명예도, 돈도 버릴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한 삶만이 조국에 영원히 도움이 되고, 인류를 지배하는 삶이라고 했다.

돈에 대하여 정직하고 명예를 초월한다면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 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웨신에 들어왔으니 웨신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 웨신총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자면서 웨신총회의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세계에 빛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을 믿는다며 격려했다.

이어 고시위원 김춘택 목사 사 회로 4부 폐회예배에서 총회 부총회장 허성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기총 내방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일(금) 오후 2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여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서울지방청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전 분야의 핵심이 4대



사회와 적결이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

“체계를 잡아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전예방과 재발, 피해자 보호 등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김병수 해화경찰청장, 김양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보2과장, 부총무 도용호 목사, 윤덕남 목사 등이 배석했다.

김정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한교연 내방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3일 오후 취임 인사차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 박우근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박 대표회장은 “경찰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서번트(섬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경찰총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한국교회연합이 전개하는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기



도와 지도편달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장 방문에 서울경찰청 김양수 정보2과장과 김병수 해화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사설

5.1 개성 공단 철수의 의미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물질로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의 가늠자란 소망을 품고 있기도 하였으며 북한 주민에게 하나의 기쁨의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일의 소행으로 그 끈마저 끊어 버렸다.

김일성이 죽은 뒤에 김정일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햇볕정책이라는 구호아래 그들에게 퍼주는 선심정책은 우리나라가 미친개에게 고기를 물려주는 격이 되어 버렸다. 김정일이 죽고 난 뒤 김정일은 그래도 스위스에서 자유의 물을 먹은 것을 생각하여 평화와 자유와 어느 정도의 풍요라는 것을 국민에게 안겨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 마치 철없는 아이가 뜨거운 물인 줄도 모르고 가마솥에 뛰어 들러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 아찔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입지적으로 보아서도 위로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으며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었기에 그들을 공격하기엔 생 각도 못할 일이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만 신라 백제 고려 삼국 시대를 거치고 고려와 조선의 지나 한국을 세우기도 전에 일본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해방 후 그래도 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찌하면 통일을 이룰까? 분단된 나라를 통일해 보려는 김구 등 정치인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었고 드디어는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 후 감사가 하게도 남한은 복음화 되면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선진국의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잘 살아보자는 정치인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에 따라 이젠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부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반공으로 되어 버렸으며 세계가 놀라우리만큼 완고한 세습 공산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 그들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으로 서서히 평화통일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도 북한과 한 팀을 이루어 세계가 놀랄 만큼 좋은 성적도 이루었다. 혹 멀어질 새라 경제인들 중에는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를 또한 이득을 취하면서 꿈을 키워왔다. 그런데 왜일인가? 김정일의 어린 아이 같은 전쟁놀이는 그저 장난이 아니었다. 세계가 전쟁준비를 해야 할 만큼 위협을 주는가? 했는데 그나마 가늠자란 평화의 끈을 잘라버린 정책으로 개성에 투자한 기업들은 실망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전기·수도료와 임대료 등도 밀려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섬유업체 대표는 “우리 회사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을 회수해도 피해를 줄이지 못한다”며 울상이다. 이에 협회는 특별법 제정 같은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는데 협회는 이날 긴급히 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철수한 기업주들은 국가 정책에 불만보다는 이미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정부는 북한의 망령된 행위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그들로 자립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 재가동은 어려울 듯 하다. 하지만 그들의 그 정체를 버릴 때까지 인내를 가져보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목총회 정기총회 공고

표어 :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제36회기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입후보 등록공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한경총 정관 14조 3항의 의거하여 총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경총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은 해당계좌로 등록기간 안에 입금해야 입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회장  허석 목사 과천영락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효은 목사 화정총현교회	총무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사랑의교회
---	--	---

- 임원명단**
- 중경총회장: 임신형 목사, 조용목 목사
 - 고문: 권다윗 목사, 박한규, 지왕철
 - 부회장: 강년섭 목사, 김길수, 김중순, 김창룡, 남규열 목사, 유철규, 이정훈, 이창식, 조규성
 - 부총무: 조연기 목사
 - 협동총무: 우솔초 목사, 임해숙 목사,
 - 서기: 양미상 목사 • 부서기: 박양우 목사
 - 회의록서기: 오성규 목사 • 회의록부서기: 김욱환 목사
 - 회계: 정운선 목사 • 부회계: 주광삼 목사
 - 감사: 이효은 목사, 이상재 목사, 정기남 목사(한경총 언론대표)
 - 이사: 박용준 원장, 옥윤진 목사, 임기석 목사

- 아 래**
- 후보 등록 일시: 2013년 5월 2일부터 ~ 5월 16일 까지
 - 구비서류: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통 / 주민등록 1통 / 각 총회장 및 임원 추천서 1통 소정양식
 - 발전기금: 입금확인서
 - 접수처: 한국경목총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 3동 370-40
 - 효과적인 경찰선교를 위하여 관심 있으신 분은 경목위원으로 초빙합니다(이사/중앙위원)
 - 전화: 02-2625-0982, 02-583-1955
 - 사무국: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문의: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 이메일: (church_7@hanmail.net) ·
 - 계좌번호: 우체국 013953-01-001654 (전국경목총회)
 - 제36회 총회일자는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11시 (장소는 추후 공지합니다.)
 -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 한국경목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효은 목사
서기 양미상 목사
회계 정운선 목사

선한목자교회 김준장 목사 이전 감사예배 드려

영혼구원과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김준장 목사)는 지난 4월 27일(토) 오전11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본당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웨신총회 경천노회 서기 성용구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담임 김준장 목사의 기도가 있었고,

경천노회 회계 송정숙 목사는 시 133:1~3절을 봉독, 전창룡 목사가 특송을 했다.

노회장 장창운 목사(열린찬양교회/웨신총회 부총회장)는 "함께 누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웨신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가 축사를 맡았으며,



경천노회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가 권면을 했다. 이어서 손병숙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한 후 노회장 장창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담임 김준장 목사, 손병숙 목사(사진)는 "선한 목자교회의 이전 감사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서 이전 예배에 참석해 내의 빈을 비롯 모든 동역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으며, 설교와 순서를 맡아준 노회장과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컸다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심정으로 새롭게 각오와 결단으로 이 강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목양사역에 힘쓰겠다며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연남동으로 선한 목자교회



노회장 장창운 목사

를 이전하기까지 격려와 위로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가족들, 친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한 김준장 목사, 손병숙 목사 부부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하여 성전을 이곳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혼구원과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 및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웨신 신학위원회 목회자 강도사 연수교육 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신학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제2기 목회자, 강도사 연수교육을 갖는

다고 결의했다. 웨신 신학위원회는 목회자 강도사 연수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2012년~2013년 중 교단가입 자, 신입목사 중 강도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7일

(금) 오전 10시~18(토)일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 4동 영광교회(조광수 목사시무)에서 연수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연수교육은 5월 17일(금) 오전 10시~11시까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60분 수업 6강좌, 21시 저녁집회, 5월 18일(토)은 오전 6시~7시까지 새벽기도회, 60분 수업, 3강좌, 13시 폐회예배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정목총회 남부구치소 부활절 위문공연 열연

한국기독교경찰총회(총회장 허식 목사)는 지난 4월 오후1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행자들을 위로하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활절 감사예배에 앞서 하나님이다자인한교회 김창룡 목사(한경총 부회장)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연주하여 수용자들로 큰 위로잔치가 되었다.

이어 한경총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인도로 시작된 부활절 감사예배에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청각장애인지원연합 대표/한경총 협동총무)가 수어로 수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 박영미 사모가 성경 이사야 55:6-13절을 봉독했다.

이어 서울방주농아교회의 청각 장애인들이 수어로 특송과 율동을 하자 수행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등 위로잔치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어서 한경총 부회장 김창룡 목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한 때에 찾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했다. 김 목사는 의로운 길은, 죄인일지라도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삶을 갖는다고 했다. 의로운 삶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길, 의로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수행자들을 위로하고 인사를 한 후 기립하여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고, 한경총 총회장 허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개신대원, 천주교 자유주의신학에 보수개혁신학은 포기하는가?

지금 개신대원대학교(이하-개신대)는 조재천 교수의 신학사상 "천주교사상 및 자유주의사상"에 힘써서 수용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개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조 총장에게 본 언론은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답신의 기미는 없는 듯하다.

만일 조 총장이 개신대의 보수 개혁주의를 배제하고 "천주교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개신대원의 전신은 개혁신학연구원과 총회신학교(합동보수)인데, 이는 개혁교단의 요청에 의해 중앙교회와 성도들의 피파 어린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하지만 학교의 운영은 이사장과 가족들(아버지 이사장,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총장, 넷째 아들 장인이 이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이 아님을 자인하고, 학교를 마치 개인 사유화로 여겨 교육의 중요성을 떠나 자기를 마음대로 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취재결과 개신대원은 자칭 개혁주의자라고하는 조()천 씨의 천주교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이 명백하게 들어났으며, 총회 홈페이지에도 지적한 조()천 씨의 목사 안수의 문제도 과정을 무시하고 개혁신학수학 없이 예일대 엠디비 만으로 안수 받은 불법으로 밝혀졌음에도 자신은 정당하고 이사장과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함과 자기기는 천주교대학 출신이지만 도리어 전 총장들은 유대교와 루터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문제이라고 말한다. 이에 총회 홈페이지에서 조()천 씨에 대한 신학사상과 불법을 성토하며 사퇴하기를 원하지만 개신대의 이사장과 총장도 개혁주의를 모르며, 이미 개혁주의를 포기하였기에 무조건 조()천 씨를 도리어 감싸고 천주교와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취재를 요청한 Canada Christian University 출신의 교수는 무명의 학교로 확인되었고, 현재 강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학생들까지 피해를 주며(학점 불인정) 불법에 동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기회로 "개신대원이 절대로

자유주의화가 안 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개신대학의 조경대 이사장은 신학의 사상보다 S 대와 돈만 앞세우는 하이에나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변화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의 이사들은 하나님보다는 담임목사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 병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신학대학의 실정을 모르기에 형과 조재천 씨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 총장이 되어서도 더욱 안 되며, 학교의 행포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 못하는 교수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신학사상은 신앙과 연관된 생명이다." 개혁교회에서 개혁인이 열린 글(420번)에 "이제는 결론이 납니다."에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과 결론적인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이 있는 이사장과 총장이라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천주교를 개신교로 자유주의를 개혁주의로 인정하려고하는 개신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보수 개혁주의로 환원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개신대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 한국교회와 언론으로부터 신뢰받는 총회와 신학교가 되기를 기원하며 진정 한국교회의 보수 개혁주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조()천씨와의 관계, 이사들과의 관계, 학교의 잘못된 부분들과 교육부의 문제 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기대해 본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표중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저녁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주일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생명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름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주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목단지]

대표전화 : 0611272-4908, 0611278-0692 팩스번호 : 0611278-0693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2부 3장 17절)"			
예배 안 내	요일	시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전 3:00	이전 수련회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영남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성령의 불로써 세계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대한예수교 경서교회
KYOUNG SEO PRESBYTERIAN CHURCH SINCE 1982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다른 한 걸음

2013 축복의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우리



당회장 홍재철 목사



홍성익 변역사

부서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 7시 2부 주일오전 9시 3부 주일오전 11시30분 4부 주일오전 3시	송파본당(1층) 송파본당(1층) 송파본당(1층) 송파본당(1층)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	송파본당(1층)
영양부	주일오전 9시	방학(1층)
유치부	주일오전 9시	방학(1층)
초등부	주일오전 9시	방학(1층)
소년부	주일오전 9시	방학(1층)
청년부	주일오전 9시	방학(1층)
주일예배	주일오전 11시30분 주일오전 3시30분(방학예배)	송파본당(1층)

● (421-8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번지
● 전화 : 032) 684-8241-5 Fax : 032) 684-8240 ● http://www.kyoungseo.org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정총현교회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꾸리 여기는 교회입니다.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총사역의 총재)

시무장로 : 신익호, 정종국, 김홍령

2013년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시라(사1: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함 신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차이	시	예배	주일예배
(5월)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5월)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5월)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5월)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38번길 27(화정동)
● 교회(031) 966-0015 (FAX겸용) 타택 (031) 965-7682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새 성전 입당예배로 영광!



소진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는 지난 4월 20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 수락리버시티 2,3단지 내에 새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는 지난 2010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30분 수락리버시티 2,3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기공예배를 드린 지 3년 만에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리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담임 소진우 목사는 예복교회를 지하 1층에 발코니식, 자모실, 조경실, 로비, 새가족교육실, 창고, 지하 2층은 분당, 준비실, 새신자실, 저수소 펌프실, 창고, 지상 1층에는 복가레, 주차장, 지상 2층은 중예배실 좌석 110석, 소예배실 좌석 80석, 사무실, 부교역자실, 지상 3층, 소모임실, 게스트룸, 목양실, 하늘



예복교회 입당예배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왕상 8:13절)

정원이 있으며, 지상 4층, 식당 및 옥상 정원 등을 설계하고 이날 아담하고 아름다운 시설로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소진우 목사 인도로 새성전 입당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중부노회 노회장 윤석철 목사가 기도

를, 사찰장 박운일 목사는 로마서 12:14절~21절을 봉독하고, 예복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백석총회 직전총회장 유종현 목사는 "우리교회 좋은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유 목사는 첫째 좋은 교회는 서로가 축복하는 교회요, 둘째로 좋은 교회는 同居同樂(동거동락)하는 교회요, 셋째는 겸손이 있는 교회

가 좋은 교회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다. 넷째로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다.

이어 이석용 목사가 불행기도를 하고, 몸풀에서 온 사역자들 일동이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아울러 담임 소진우 목사는 교회 건축에 힘써온 전영민 소장, 정한규 반장, 배수경씨 등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광희 장로, 전승길 장로, 오경주 권사, 류순옥 권사, 김점례 권사, 황인옥 권사, 김혜숙 집사, 최금자 집사, 박미영 집사, 문병선 집사 등에게 각각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격려사를, 수동기도원 원장(성북교회 당회장) 이태희 목사는 축사를, 김영옥 선교사가 축가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서 담임 소진우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문영철 목사 축도로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마쳤다.

이날 소진우 목사는 그동안의 고초를 밝히면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면 지나고 보니 그만큼 기도도 더하게 되었고, 경험한 은혜가 더 많았다고 한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3년의 기간을 오로지 성전건축을 위해 매일 밤 9시만 되면 강단 앞에서 엎드린 이들, 담임 목사 목회와 부흥사역에 지장 없도록 직접 발로 뛰고 물질로 헌신한 이들, 먼 나라 해외에서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로 건축헌금을 보내준 이들, 또 나타나지 않는 이름과 모습으로 헌신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수고에 수고로 헌신한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통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경험할 일꾼들이 많음을 감사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감사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왕상 8:13절~14절) 아멘...

웨신 대한노회 제10회 정기노회 마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 지난 4월 8일(월) 오전 11시30분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소재 제자교회(담임 김정미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백호살롱교회)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박명자 목사(도원생명교회)가 기도를, 심중수 목사(시온교회)는 살후2:1~8절을 봉독하고, 유운주 목사(조애교정교회)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있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참석자들과 노회 총대들이



제10회 정기

많은 깨달음과 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 속에 장한국 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성찬식에서 부노회장 오상열 목사(송리교회)의 집례로 윤장석 목사(소망교회), 김정미 목

사(제자교회)가 분별위원회와 분찬위원을 맡아 봉사했다.

식사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박종연 목사(카이노스교회)의 기도으로 서기 박민규 목사의 회원점명에 이어 노회장의 개회 선언되었다. 이어 화기에애한 가운데 신안건토에 들어간 대한노회 총대들의 토의진행은 긍정적인 분위가 모범적이었다.

이날 차기 내회장소 결정되고 노회장이 폐회를 선언한 후 제4부 노회장의 인도에 유운주 목사의 기도으로 폐회예배에서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말씀 선포와 축도로 성노회를 마쳤다.



방윤희 목사의 차녀 윤영선, 결혼식 올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앙노회 부노회장 방윤희 목사는 4월 27일(토)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엠스테이트컨벤션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양가의 가족과 친지들, 웨신총회 임원들, 중앙노회원들과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예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결혼예식은 이형수, 강숙자의 장남 병걸 군과, 윤임중, 방윤희 목사의 차녀 윤영선 양의 결



혼식에서 이태백 목사(하남교회)의 주례로 한 쌍의 부부가 탄생되어 많은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

으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축복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금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성교회(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교회(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신성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3-26	광운기교회(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원동교회(송우중목사)

2012년 2월	
6-9	김림산기교회(이옥란원장)
12	예수성교회(신동진목사)
13-15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6	신갈장교회(이광수목사)
19-22	성신수양관(윤호균원장)
27-29	평강교회(박성주목사)
	증평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중목사)
5-6	성수기교회(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종환목사)
27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이영진목사)
13-16	성신교회(송인도 목사)
21-24	광운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교회(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정호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서명지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9-10	신학성여름제미나
23-26	천문기교회(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교회(이영금원장)
11-16	광운기교회(김한배원장)
20-23	갈멜산기교회(유택진원장)
27-30	성신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3-5	주요리교회(이영금원장)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 총회
24-26	일신교회(최정호목사)
30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교회(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7-20	성수기교회(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교회(유택진목사)
29-31	김단지역교회(한성원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성교지방회
11-14	동서교회(리계동목사)
19-21	경성교회(이원정목사)
25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6-28	예수전교회(이승훈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산교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안성결교회(강선진 목사)
10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4-16	강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1-23	참좋은교회(김삼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교회(이영금원장)
5	창사원교회(강선진 목사)
4-7	김림산기교회(이옥란 원장)
11-14	광운기교회(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동우 목사)
21	갈멜산기교회(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교회(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17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013년 4월	
1-3	광릉교회(김성웅 목사)
8-11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29-1	주요리교회(이규환 목사)

2013년 5월	
3	C제일 TV예배
6-8	참사랑교회(강선진 목사)
11	주향기교회(김동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19	갈멜산기교회(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나눔예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10-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7-19	성신교회(이기재 목사)
24-27	진주기교회(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5	신학성여름특별제미나
7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장)
7-20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22-24	온정교회(추영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교회(유택진원



2014 'Great Awakening 해운대성령대집회'

5월18일(주일) 오후4~9시... 김용의 선교사

30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하는 2014 'Great Awakening 해운대성령대집회' 열그림이 나왔다. 2014어웨이킹 준비위원회는 수차례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와 실행위원회(위원장 임석웅 목사, 대연성결교회)를 개최하고 집회의 방향을 '회개와 부흥 그리고 통일'로 잡았다.

2014 'Great Awakening 해운대성령대집회'는 2014년 5월 18일(주일) 오후 4시~9시까지 해운대백사장에서 5시간동안 개최한다. 주강사는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가 맡았다. 이를 위해 6월 13일 호산나교회에서 방지일 목사를 초청, 발대식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4번의 연례별·계층별 징검다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 장소를 해운대백사장으로 정한 것은 6.25전쟁 당시 민족적 위기 앞에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각각 초랑교회와 해운대백사장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나아가 세계선교의 동력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실행위원장 임석웅 목사는 "이번 집회가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처럼, 에스라 시대의 수문 앞 광장처럼, 국가의 존망 앞에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며 해운대 백사장에서 함께 모



여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말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최홍준 목사는 "2007년 해운대집회는 도시의 부흥과 회개를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면 2014 해운대성령대집회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라

부산, 영남지역교회 30만명 규모...

회개·부흥·통일

될 것"이라며 "이번 연합기도회를 통해 개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어웨이킹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호산나교회(홍민기 목사)에서 내년 해운대성령대집회에 대한 부산지역 목회자 설명회를 개최한 후, 19일과 20일 각각 울산과 경남지역 목회자 설명회를 가졌다. 2007년은 도시를 위한 기도... 2014년은 한국을 위한 기도

2007년 5월 당시 해운대백사장에 모인 20만명의 성도들이 부산을 위해 기도했다면 2014 'Great Awakening' 해운대성령대집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교회 30만명이 해운대백사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2014 어웨이킹 준비위원회는 교회들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 세계최고의 자살률, 이혼율, 이단들의 위협 그리고, 교회마저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이때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며 '회개와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 선교130주년기념 한국기독교 근대사 재조명 작업시작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목사)이 2014년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근대사를 정리하고 대사회적 신뢰회복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분기점으로 130주년 행사를 준비한다.

미래목회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한국 기독교 1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과 성회, 백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의 기초 작업으로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기독교라는 주제로 2014년 선교 130주년이 가지는 의미와 위치에 대해 15가지 핵심주제를 선정했다.

기념학술심포지엄은 심포지엄위원회(위원장 고명진 목사)에서 주관하여 '한국기독교, 조선 근대화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명진 목사는 "초기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조명과 유산들을 연구 정리하고 소개,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기독교를 빼고 근대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로 인한 근대화의 학술적인 자료들이 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오정호 대표는 "교과서 재정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진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념성회는 성회준비위원회(위원장 유만석 목사)에서 '세상의 소금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정하고, 2014년 6월 중순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유만석 목사는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모두 함께 감사를 나눈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일치와 갱신, 공교회성회복과 통일시대를



“교과서 재정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진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념성회는 성회준비위원회(위원장 유만석 목사)에서 ‘세상의 소금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정하고, 2014년 6월 중순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역사, 연합, 부흥, 개혁, 통일, 미래, 선교” 등 7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일치와 갱신, 공교회성 회복과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만석 목사는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모두 함께 감사를 나눈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일치와 갱신, 공교회성회복과 통일시대를

열어갈 우리 사회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행함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고 취지를 밝히며, “집회를 통해 성도들을 계몽하며 한국사회에 이슈를 던지고 통일한국을 바라보면 장소를 특별히 임직 각에서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출판위원회(위원장 김권수 목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크리스천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방향제시와 지침이 될 100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100인의 각계 전문가와 교수진 및 목회자들로 태스크포스팀(TF)과 저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까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준비작업을 통해 400쪽 분량의 ‘한국 기독교, 미래를 여는 이슈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성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돌아보면서 미래목회포럼이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 대사회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것이 목회자들과 대사회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정호 대표는 “내년 한국 기독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역사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근대사를 정리하고 대사회적 신뢰회복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미래목회포럼은 12개 교단 300여명의 목회자와 30여명의 각계 정책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사회와 교회현안 연구,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정기포럼과 콘퍼런스 등을 열었다.

WCC 부산총회 반대 선언문

지금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득하고 험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대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북한은 싸이버테라에 연이어 전장도발 망언을 선포하며 위협하고 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차별금지법”이란 법안을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고사하고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 권리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은 그 것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유명하다는 교회들이, 이를 있다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진리를 짓밟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까? 어쩌다가 한국 기독교 현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정말이지 숨조차 쉬어지지 않습니다.

WCC(world council of church) 10차 총회가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말이 “세계교회연합”이지 사실 “세계종교연합”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다원종교를 지지”를 결의한 바 있으며,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단의 모임입니다.

WCC에 가입한 목사들은 성도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고 교단에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가르침으로써 외치고 있으며, 이 끔찍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 믿었다가 지옥 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WCC에 가입한 교회 성도들은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로 빨리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기막힌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설마하며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진리를 말해도 알아들지 못하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계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WCC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실한 성도들은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란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외면당하고 질서는 어지럽혀지고 악은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두려워 할 기본적인 삶마저도 파괴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들의 분별이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주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광명민 목사

- ◆ 예정(백석) 인천노회 소속
- ◆ 등불교회 담임
-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구실장
- ◆ 지저스타일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 지저스타일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구 요청”
http://kmission.onn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사관학교



교장 김혜자 목사



대표 광명민 목사

-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3:00
- ◆ 내용 : 찬양 이론 및 실기, 부흥회 설교학, 시편연구, 부흥사 연구
- ◆ 문의 : (원장)010-2080-065, (교장)010-5517-7223
- ◆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 ◆ 주소 : 인천 남구 용현1동 8-7 2층

교재 및 식사 무료 / 회비 없음

서울 양천구 신월1동148-19(2층)
☎ 010-7707-4319, 010-2080-0651

탈퇴공고

그동안 노회와 총회에서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속되어 있던 중앙노회를 탈퇴하고 총회 부서기와 신학위원장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웨신총회 직영신학교(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총회에 반환하게 되었음을 이의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정기환 목사

제명공고

본 교단 웨신총회 임원(부서기), 신학위원장에 재직하던 정기환 목사는 본인의 교단탈퇴로 인하여 본 총회에서제명하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과는 더 이상 본 총회의 직영신학교가 아니며 본 총회와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2013년 5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차별금지법안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단장에 경수근 변호사 선임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가 25일 오전, 리츠칼튼 호텔 3층에서 모임을 갖고 기독교 변호사들 중심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및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은 공동대표 김영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대표기도,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망이 달려 있다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 만큼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 논의의 관련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는 “▲이직 철회되지 않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측에 철회를 촉구할 것 ▲독소조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종교) 삭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요구 ▲한국교계, 조직적 참여 지속으로 할 것 ▲전문인을 양성해 학문적, 법학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밝혔다.



전 장로는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동성애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인권이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 권고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법안이 끼워넣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전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유럽, 미국 등의 기독교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또한 한국과 연대해 우리가 회복되어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전 한국기독교법조인회 사무총장)는 “중요한 사안이 기독교의 반발로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독교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더욱 깊어지게 검토해 체계적인 이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에 관련한 비상대책위 경과를 보고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제2법안 발의,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제3법안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3월 9일 전용태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 고동현 변호사,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학과)김철영 목사 등이 모여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어 3월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3월 13일에는 한국교회 지도자초청 보고회, 15일 전반기독교총연합회 결의대회 등을 철회 운동 등을 시 광역별로 확산했으며, 미주 보고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 30일 CTS 좌담, 국민일보 좌담을 가진 바 있다. 이후 4월 17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입법 철회를 발표,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차별금지법안 철회의 뜻을 밝힌 데 이어 24일 법안 철회 의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장로는 “김재연 의원 측이 차별금지법안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다고 판단된다. UN이 권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입법 발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비상대책위는 전국 각 지역별로 광역시·도별로 이를 전담하는 공동대표를 세우고, 지역별 기도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족 통일준비대회 및 세계평화상 시상식개최

북한의 핵실험강행과 미사일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등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한민족 통일준비대회 및 세계평화상 시상식”이 5월 1일 오후4시 세종호텔국회의실에서 “세계평화상 시상식”, “통일기반조성회의”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간운동단체의 공동주관으로 300여명의 정계, 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세계평화봉사단 한민수 총재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일해 온 우리지도자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를 위해 일해오신 지도자들에게 국제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런 고귀한 사역이 줄기차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상훈 세계평화상평가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스라엘대사를 역임한 “아서, 나임” 현 세계평화상시상위원장과 2000년도 세계평화상본상수상자인 김영진 전농림부장관, 민족회의대표 김성식총재, 북경대학의 피아오창 교수, 박근영 민족회의자문위원장, 김재호 국제신도연맹대표회장, 심하복목사, 이영훈 전국아파트선교회 대표 등

이 참석했다.

김영진 전장관은 격려사에서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해 온 세계평화봉사단의 한민수 총재님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봉사 해 오신 지도자 여러분의 활동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안보가 위기상황인 이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의 지도자들이 세계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한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알렌 에이벤스크소회장, 러시아의 리카체프 바실리 푸틴 정부국가안전대책본부위원장과 중국의 북경대학 피아오창 교수 등 수상자에 대한 시상상은 한민수 총재, 이스라엘의 아서나임 평화상 시상위원장, 2000년 수도연맹대표회장, 심하복목사, 이영훈 전국아파트선교회 대표 등

이날의 축사를 맡은 세르지에 나리쉬킨 러시아국회의장과 황우여국회조찬기도회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축하의 뜻을 표했다.

박근영 민족회의 자문위원장은 축사와 수상자에 대한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반도 주변 3국의 중요한분들이 오늘 세계평화 봉사단으로부터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크게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원로이신 한민수 총재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행사는 이규용, 정철 부대표의 통일준비회의선언문 채택, 임순화 민족회의 여성회장의 축하사 낭독, 상명대 이근자 교수의 축하 등 무려 3시간동안 계속되었으나 이석자 없이 계속 진지하게 진행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평화와 한반도안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한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충북 대표미인들 화장품뷰티박람회 알린다

박람회조직위, 미스코리아 출신 등 명예홍보대사 위촉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충북을 대표하는 미인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일(수) 오후 5시30분 조직위 사무총장실에서 미스코리아 충북 출신자 등 6명을 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

촉된 명예홍보대사는 2010 미스코리아 충북 진 흥태영, 2011 미스코리아 충북 진 흥다현, 2012 미스코리아 충북 진 이주원, 충북 선 임지혜, 충북 미 박사내 등 5명의 미스코리아 충북을 대표하는 미인 및 청주 윤호고등학교 김기현 교무부장 등이다.

이날 미인들과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기현 교무부장은 지역에 열리는 뷰티박람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스스로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충북도는 지금까지의 명예홍보대사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도 발전을 위해 도내 기관·단체에서 나

섰다면, 이날 위촉은 충북을 대표하는 미인들이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스스로 나섰다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위촉식에서 고세웅 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화장품·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미인들로 여러분들이

박람회 성공의 주인공으로 당당한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주최하며, 오는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국내외 300개 이상의 기업과 관람객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화장품·뷰티문화 종합 박람회로 마련된다.

충청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로 생산유발 973억 원, 부가가치 449억 원, 고용창출 1,450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단체는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이며 기독교 언론인의 사명과 한국교회와 기도원, 농어촌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는 건전한 초교파 부흥사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감당에 뜻을 같이할 부흥사를 정중히 모실 것입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정대성 목사, 박동훈 목사, 장한국 목사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자문 박양우 목사, 이범성 목사, 허 식 목사, 최순길 목사, 서영웅 목사, 박한규 목사 ◆상임회장 홍향표 목사, 박동호 목사, 박수영 목사, 최낙현 목사, 김동기 목사, 권세능 목사 ◆실무회장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정성준 목사, 임요한 목사, 이기학 목사, 김명옥 목사, 한충희 목사, 전진성 목사, 강신숙 목사,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총무 김홍중 집사 ◆회계 : 유윤주 목사

지저스타임즈(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표어 :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설기는 분들

당 회 장 정대성 선교사
담 임 목 사 임찬미 선교사
교 육 목 사 이상철
음 악 목 사 김광만
장 로 임연섭 장덕남
안 수 집 사 김진영 윤성우 진대박
권 사 황완소 김현애
여성교회장 오진희
찬 양 인 도 임찬미 선교사
지 휘 자 황창하 사모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북원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대한예수교 순장총회



노월수(D.R.E) 박사 강철 목사 서명범 목사 지태일 목사 추영조 장로 한명학 장로 윤정현 목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 (02)845-7711 / Fax : (02) 844-7711
Home page 문의 : (041) 853-9966 / E-mail : lov153@naver.com

제66차 성령님, 성령, 영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들은 '영'이라는 헬라어의 펠루마(pneuma)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계의 혼란을 가져왔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영과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을 구별되는 제 3위격을 지칭하는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여 the Spirit으로 기록하였고 영을 기록 할때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spirit을 사용하였다. 성령님을 the Holy Spirit, the Holy Ghost, the Spirit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KJV에서는 Holy Ghost, the Spirit, spirit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흥정역 성경에서는 Holy Ghost는 성령님(행2:4)으로 번역하였고 the Spirit은 성령(행2:4)으로 번역하였으며 spirit은 영(롬1:4)으로 엄격히 구분해 놓았다.

(1)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된 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생령(生靈)'으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성경은 생령(生靈)으로 번역하고 난하주에는 히브리어에서 '생물'이라고 했으며 바른성경은 '생명체'로 번역하고 난하주에는 '생령'이라고 했다. 생명체는 살아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생령은 살아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혼은 사람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몸은 이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spirit), 혼(soul), 몸(body)으로 구성 되어 있는 3분설(살전 5:23, 히 4:12)이 2분설보다 성경적이다. 히브리어 원문의 창세기 2:7은 '영'(루아흐)이 아니라 '혼'(네페쉬)이다. 그런데 바른성경은 전혀 원문의 근거가 없이 '생명체'로 번역했다.

삼분설의 원문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2) 전 3:21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벤 카임 맛소라 사본)은 '짐승의 영' (the spirit of the beast)으로 70 인역에서는 '짐승 의 혼' (the soul of the beast)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역성경]인 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바른성경]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랴? [흥정역]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3) 마 14:26을 다수필사본에서는 '영'(spirit)으로 번역 했고 중립사본계열에서는 '유령'이라고 번역했다. [개역성경]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른성경]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원어신약성경]도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것이 유령이라 말하며 [흥정역]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4)고전 15:45절에 다수필사본에서는 '살아있는 혼'(living soul)으로 중립사본계열에는 '영'이라 했다. [개역성경]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바른성경]"첫 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원어신약성경]도 그같이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흥정역]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5)엡 5:9절에 다수필사본에서는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로 중립사본계열에는 '빛의 열매'라고 했다. [개역성경]빛

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바른성경]빛 3:3;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원어신약성경]빛 3:3; 그것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흥정역]빛 3:3;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8)성령님을 사제한 구절(눅 2:40, 롬 8:1, 빌전 1:22, 요일 5:7)

(9)영(spirit)을 마음, 열심, 심령 등으로 번역(막14: 38, 눅1:17, 딤후1:7, 롬12:11)

[개역성경]막14: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바른성경]막14: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원어신약성경]막14:38;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또 너희는 기도하라 영은 실로 준비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흥정역]막14:38;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으로 영은 준비되어 육이 약하다.

[개역성경]롬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계열

(원어 신약성경과 흥정역)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

(개역성경과 바른성경)

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른성경]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원어신약성경]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이다. [흥정역]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6)다수필사본에서는 '영 안에서' (in the spirit)로 중립사본계열에는 '성령'이라 했다 (계 17:3, 21:10). [개역성경]계 17: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바른성경]계 17:3;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원어신약성경]계 17:3; 그 같이 그가 성령(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흥정역]계 17:3;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개역성경]계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바른성경]계 21:10; 그가 성령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원어신약성경]계 21:10; 또 그가 성령안에서 나를 크고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흥정역]계 21:10;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7) 대문자 'the Spirit' (성령)와 소문자 'the spirit' (영)을 구분하지 못함(빌 3:3). KJV :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rejoice in Christ Jesus [개역성경]빌 3:3; 하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른성경]롬12:11; 게으리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원어신약성경]롬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흥정역]롬12: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번역을 할때 어느 사본에서 하나님에 따라서와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는 이제까지 4세기 경에 다른 사본이 나왔다는 사실과 오리게를 아주 훌륭한 학자라고 배워왔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고고학과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과학문명으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학자들이 본분비평이 아닌 고등비평으로 편집한 성경들을 출판 하면서 수용원문을 수정하여 출판되어 나오므로 성경 다원화 시대가 도래 되었다. 인문주의자들과 개혁자들은 본분비평으로 끊임없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하고자 하였다.

김수정 원장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포옹이 면역성을 높인다! (46)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최근 영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면역성이 높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정상화시킨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된 후 애완동물의 품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건강 상담원으로 활약하는 캐들린

키팅이라는 간호사는 포옹요법을 개발하여 고통 근심 절망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환자의 생존의지를 북돋워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에 의해 제창된 포옹요법은 미국의 대형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훈련과정에 포함될 정도로 의학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녀의 이론에 의하면「포옹은 기분전환에 좋고 외로움을 없애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자부심을 갖게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고 젊음을 되찾아 준다. 긴장을 풀어주고 불면증을 없애주며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육구불만으로 많이 먹어 뚱뚱한 사람에게 식욕을 줄여주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에게 안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한다.

특히 맛벌이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은 엄마의 품을 떠나 탁아소에서 자란 아이들의 애정결핍증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실감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결은 시간 나는 대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다. 물론 안아주는 일은 꼭 치료요법으로만 써야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황성주 박사



칼럼

하나님과 아버지

성경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유대전승의 의하면 부모에 대한 제5계명은 모세가 받은 두 돌판에서 첫째 판에 속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둘째 돌 판의 다섯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분류되었다.

아버지는 몇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첫째,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 주신데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다. 동양사상에도 '신체발부는 부지유체'라 하여 이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둘째, 아버지는 자녀를 길러주신데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부모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그리고 희생적으로 자녀를 기른다. 이 면은 순전히 본능에서 사는 동물의 세계에서 보다 현저히 드러나 그것이 창

조주의 역사임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아버지는 자녀를 바로 기르기를 원하며 자녀가 잘못되면 이를 징계하는데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사람이란 자신은 부족해도 자녀만은 완벽히 기르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삼권인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권력을 대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아버지에게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미7:10-13)

칼럼

아버지 은혜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 아버지를 만나지만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에 질색하고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매는 마지막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화장한 다음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속에 뛰어들어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를 여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남겼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줄의 재가 된 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후회합니다.

최병남 목사

대전 중앙교회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를 누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장기 요양원 정동진 회관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회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회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주일 08:00-10:00	주일 오전 9:00
	주일 08:30-10:30	주일 오후 11:00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7:30
	주일 영 예배	주일 오후 7:30
	영양증명자료공제	공모 500
교회 예배	교회 영 예배	주일 오전 11:00
	영양증명자료공제	주일 오후 9:00
교회 예배	영양증명자료공제	주일 오후 4:00
	영양증명자료공제	주일 오후 6:30
교회 예배	영양증명자료공제	주일 오후 6:30
	영양증명자료공제	주일 오후 6:30

DGB사회공헌재단, 경북북부 제 2 교도소 문화예술 공연후원

DGB대구금융그룹 대구은행 DGB 사회공헌재단은 22일 오후 1시에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 제 2 교도소를 방문 새 봄 맞이 문화예술 공연을 후원했다.

이날 공연을 통해 수형자들의 마음에 봄의 향기와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준 출연진들은 경북북부 제 2교도소의 기동교본과 위원장 이기학 목사이며, 소프라노 강효녀, 색소폰에 대니킴, 비보이 출신 공무원 이경민, 가수 선우혜경 등이었다.

특히 선우혜경은 “당신 때문에”, “저 장미 꽃 위에 이슬”등을 열창

하고, 색소폰의 경쾌한 연주로 인해 수형자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 갈채로 화기애애하고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DGB사회공헌재단은 불우시설이나 복지후원을 통해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각지대인 교도소와 협력하여 수형자들에게도 적극적인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DGB사회공헌재단에서는 연간 총사업비 1000만원을 경북북부 제 2 교도소에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 또한 연장선에서 진행 된

것이다. 하춘수 이사장은 “단순 일회성 전시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DGB사회공헌재단은 DGB금융그룹의 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에서 전액 출연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는 일명 날아가는 새들도 피해 간다는 말도 있지만 소장이자 모든 교도관들은 수형자들이 바르게 삶을 살 수 있

도록 수형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에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김○○씨가 불의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결 같이 동생이나 조카처럼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주기도 하였다.

교도소의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죄는 반듯이 그 죄 값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포항 이기학 기자



예장(백석)총회 인천노회 68회 정기노회 열려

목사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

예장(백석) 인천노회(최대목 목사)는 지난 23일(화) 오전 11시에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흥광교회(장원기 목사)에서 제68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이날 노회는 목사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에서 많은 하객과 노회원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졌다.

서기 주철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부노회장 이정갑 목사의 대표기도, 흥광교회 중창단의 찬양, 노회장 최대목 목사의 설교, 회계 변성준 목사의 봉헌기도, 노회장 최대목 목사는 강도사 인허를 허락 공포했다.

“주의 종”(왕상18:36)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최 노회장은 “주의 종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했다.

2부 노회장 최대목 목사의 사회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어 두 사람이 임직을 받아 목사가 되었으며, 노회장은 목사안수 임직패와 안수증을 수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장원기 목사가 권면을 증경노회장 김자현 목사의 축사, 임직자 대표 이영광 목사의 감사, 서기 주철순 목사의 광고와 공로목사 강영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증경노회장 이길호 목사는 아들 이영광 목사에게 직접 착의식을 해주었다.

이어진 3부에는 부노회장 이정갑 목사의 성찬식 집례가 있었으며, 4부 회무처리가 진행되어 각부 보고 및 임원선거에서 노회장 최대목 목사가 연임되었다. 68-69회

기 신임원은 노회장 최대목 목사(주찬양교회), 서기 주철순 목사(함께하는교회), 부서기 김만택 목사(희락교회), 회계 김광수 목사(복된교회), 부회계 윤영규 목사(한은교회), 회의록 서기 이종길 목사(하늘빛교회), 부회의록 서기 권준 목사(행복한비전교회)가 임명 되었다.

한편 안수위원은(공로목사 강영

희목사, 증경노회장 장원기 목사, 정지부장 김자현 목사, 안수자 담임목사 이길호 목사, 노회장 최대목 목사, 부노회장 이정갑 목사, 서기 주철순 목사, 회계 변성준 목사) 등이며, 임직자는 이영광, 최성각 목사이다.

인천지사 박영민 기자 kdp020@naver.com



법교선, 공주교도소 수용자 위한 공연 가져

공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새생명희망학교 수료식 거행

제 53회 법무부교정기독선교연합회 전국 순회예배가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교도소(신경우 소장)에서 있었다. 1부에서 법무부교정기독연합선교회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두드림 찬양단의 찬양과 경배가 있었으며, 공주교도소 소장이 신경우 집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2부로는 공주교도소 선교회장 오재천 집사의 인도로 전성길 목사(공주중앙성결교회)가 대표기도를, 이만호 장로(광주교정청신교회)가 성경봉독을, 공주중앙성결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포스텔시바덴선교회의 특별공연으로 몸 찬양을 가졌다.

이날 교정교역자연연합교회 회장 김성기 목사(대전세계교회 담임)는 교린도전서 6:19~20절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육에 갇혀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이나, 교도관이나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금송은 공주교도소 수용자 성가대의 찬양과 CCM가수 박찬미의 YOU RAISE ME UP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헌금기도로 청주교도소 선교회장인 이덕운 장로, 합심기도에 법교선 수석부회장인 노정수 강도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법교선의 발전과



교정시설 복음화와 공주교도소를 위해 했다.

특히 이날 특별한 행사에서 공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새생명희망학교 수료식을 거행하고, 새생명희망학교는 수용자들에게 13주 동안 집중적인 성경공부와 인성교육으로 출소 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며 13명의 수용자가 수료했다.

이어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이

축사를, 법교선의 김영식 회장은 그동안 공주 교도소에서 헌신적으로 동역한 진상선 목사(공주중앙성결교회) 최영호 목사(빛과 소금의선교회) 임금순 목사(샘선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후 법선교 지도목사 김봉래

축도는 법교선 김봉래 목사가 축도를 하고, 3부로는 무령왕릉 및 국립공주박물관 등 관광지 탐방을 갖고 마쳤다. 포항 이기학 기자

남미 출신 13쌍 ‘사랑의결혼식’으로 백년가약 맺어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행사로 열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 중 20일(토, 이하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사랑의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주례사를 전한 홍재철 목사는 “이번 사랑의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기 위해 13시간동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을 낳아 후손을 많이 만들라는 의미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식에는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출신의 신랑 신부 13쌍이



참석했으며, SKI ROW(노숙자중앙

하로 결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중흥교회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171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담임 **우슬초**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실만한물가교회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위 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7:00
수요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탑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승리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어 :
“배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골4:13)”

담임 **오상열** 목사
(본지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드림스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듣는 자의 복

말씀 : 사도행전 10장 44-48절 찬송 : 520장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 용기 내어 말하였더니

말씀 : 사도행전 11장 1-4절 찬송 : 39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용기 있고 진실된 말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3. 차별 없는 은혜

말씀 : 사도행전 11장 5-17절 찬송 : 586장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다고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차별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잠잠하여

말씀 : 사도행전 11장 18절 찬송 : 366장
베드로의 말은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곧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들이고 찬양했습니다. 혹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십시오.

5. 환난을 통한 기회

말씀 : 사도행전 11장 19-21절 찬송 : 343장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과 환란을 통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역경까지도 기회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6. 하나님의 계획하심

말씀 : 사도행전 11장 22-26절 찬송 : 502장
하나님께서서는 핍박과 환란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의 일꾼인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찾게 하시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처음으로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습니다.

7.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말씀 : 사도행전 11장 27-30절 찬송 : 516장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디옥교회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빛을 갠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8. 순교자

말씀 : 사도행전 12장 1-2절 찬송 : 461장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져왔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이미 스데반이라는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가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어른이었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환란은 교회

를 무너뜨리게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본 받아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9. 기뻐하는 사람들

말씀 : 사도행전 12장 3-5절 찬송 : 259장
아가보가 죽임을 당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세력이 꺾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힘이 악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낙심치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10. 기도하면

말씀 : 사도행전 12장 6-12절 찬송 : 336장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 베드로사도가 투옥되었습니다. 이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사슬을 벗기시고 그를 건져 내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고 환란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11. 기도를 통한 기적

말씀 : 사도행전 12장 13-18절 찬송 : 354장
천사의 인도를 받아 풀려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뛰어 들어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로데를 미친 것으로 여기거나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저된 영들에 주의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만을 경배하십시오.

12. 잘못된 경배

말씀 : 사도행전 12장 19-23절 찬송 : 38장
어느 날, 헤롯은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헤롯을 찬양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치셨고 그는 닷새 후 죽었습니다. 헤롯은 신이라 불렀으나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저된 영들에 주의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만을 경배하십시오.

13.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 : 사도행전 12장 24-25절 찬송 : 430장
헤롯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흥왕하여 더해 갔습니다. 강해보이던 세력은 꺾이고, 약해 보이던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의 답장도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칼럼

계절의 변화

봄은 소식 없이 우리 곁에 왔다. 지난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디면서 생명을 간직했던 초목은 돌아왔으며, 개나리 진달래 등 모든 꽃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이 끝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그동안 각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인준 등을 놓고, 지루한 정치 현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회의를 느꼈다. 선정인물을 놓고 여·야는 힘겨루기나 하듯 논쟁을 부려 새 정부출범에 공전하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시급한 정책들을 미루고 있다면 누가 국정책임자가 되어도 올바른 정책을 추진 할 수 없다.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앞날이 험난할 것만 같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국민 모두는 물론, 각부장관 모두가 함입하여 대통령의 진로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문회 인선을 보면서 정치 참여자들의 깨끗하지 못한 내용들은 국민적 분노와 회의를 느끼게 했다.

정치인들의 크고 작은 비리는 철저히 배격시켜야 한다. 모두가 흠뻑들 속에서 나온자들이라면, 정부조직 부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청빈한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 위정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들은 울분과 분노로 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추천한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비위 등으로 퇴진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 그의 곧고 청렴한 정신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다. 믿고 추천한자들이 자진 퇴진하는 것을 보는 대통령의 상한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북한 정권은 새 정부 출범에 갖은 모략과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북한 김정일의 대남위협과 군사행동을 철저히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완전히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군의 국방력 또한 완전해야 한다. 전쟁은 강한 투쟁의식이 없이는 승전할 수 없는 것이다. 철통같은 군정신의 기강을 재확인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군 고위 간부들의 골프로 인한 사회여

14. 첫 선교사

말씀 : 사도행전 13장 1-3절 찬송 : 501장
성령께서 안디옥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세계선교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영웅 목사

류리탄 장로교회
본방송 성임이사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1. 일시 : 5월 6일(월)부부 매주 월요일 13일, 19일, 26일
6월 3일, 10일, 17일, 24일까지 오전 10시30분-오후 3시
2. 장소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소 :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향리 390번지 / 김창룡 목사 사무
문의 : 031-354-7591, 031-354-7891, 011-204-6795, 011-287-0691,
010-7172-0675, 016-348-6374
3. 제목 :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 세미나
강사 : 차상기 박사 (임상병리사/한의사)
4. 목적 : 전도를 위한 자연치유 전문 사역자 양성
특징 : 1)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2) 쉽게 마음문을 열 수 있다
3)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4) 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
5) 쉽게 교회로 인도 할 수 있다
6)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다.
7) 전문치유 사역자가 되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다.
8)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참가비 1만원 ● 중식 제공 ● 준비관계로 하루 전 예약바람 ● 리딩바디 전도법 수료증 ● 참가자에게는 특별 건강테스트를 해드립니다 ● 당일 오전 9시 50분-10시 10분까지 병점 전철역 2번출구에서 붓고 대기함
- 4월 29일부터 매 주 월요일에 자연치유 사역 전문교육이 실시 됩니다
- 1년 2학기 코스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약2:7)

담임목사 정일랑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론) 전도사 : 험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암마이)
장로 : 최문호,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nn.onn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1814-7720, 팩스 0321714-3131, 010)4274-3330

사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 ◎ 학장 : 홍요한 박사
- ◎ 교무과장 : 양미상 목사, 사무과장 : 정운선 목사
- ◎ 선교회장 : 선년규 장로
- ◎ 선교회 총무 : 김동현 간사 : 인현숙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 홍요한 목사 (연양신학대학원 / 미국에일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트대학,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장)
교 수
지왕철 목사 (미국피서레이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형 상인교단)
김창룡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총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태 교수 (연양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대선날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식 목사 (연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산대학원 석사)
임해숙 목사 (연양신학대학원/전리수호국기기도회 대표 / 예수제단 대표)
임해숙 목사 (한국농화교역자총회 중경총회장)
박용수 목사 (연대대학원 석사 / exab.org 이집원장 / 주성농아교회담임)
양미상 목사 (교리대학원 / 본 교 교무과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대표이사)
3.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랑을 살려내지마라 매를 대하며 데려다 준다.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와 1필지 에스디엑스 더블유 테이 11층 1108호
· Email : church-7@hanmail.net · 학장 : 010) 7585-1955 02) 2625-0882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약교병원교회원목회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가이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으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 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사찰 약천사를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사찰 약천사가 교회가 되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절간 사찰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바뀐 것이다. 40일 금식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김창룡 목사(59)와 사모 박영미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이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교회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의 주변의 경관이 너무도 빼어나고 그곳에 십자가종탑이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며 담임 김창룡 목사 사모 박영미 목사는 눈시울이 적셔진다. 아니 이 길은 너무도 험난했고,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해 왔던가.

김 목사는 중국에서 10여년을 선교사로 활동하다 2007년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 교회에서 가까운 곳 허름한 집에서 중보기도 팀들과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해오던 중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상 숭배자들, 불도를 70여 명이 찾아 왔고, 그 중에는 중보기도 있었다. 이들 중에 7명이 목사가 되었고, 4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김창룡 목사는 절간인 사찰 낙천사가 교회로 개척되기까지를 이렇게 말한다.

사찰을 인수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한다. 당시 사찰 약천사의 2층 대웅전(148㎡, 45평)안에 있는 불상과 촛대 연등을 제거하고 벽화는 흰색 페인트칠로 인해 예배당에서 바뀌었고, 연꽃이 있는 연못은 아이들이 뛰노는 수영장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 어느 지인의 정보로 사찰을 찾았을 때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염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기도하고 사찰을 인수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화가난채 몰려와서 우리 손으로 지은 절간에 교회가 웬 말이나 낫을 휘두르며 목사를 죽인다고 했고, 교회간판을 낚으로 찍어버렸다. 또는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항의했으며, 얼마 살지 않는 마을에서 80여 명으로부터 연관장을 받아오는 등 교회개척을 방해할 때마다 힘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김 목사 부부는 산신제를 지냈던 산신각과 대웅전 법당에서 목표를 정하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고,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후 20여 명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두 무릎 꿇고 어르



담임 김창룡 목사

신들 교회가 들어와서 이 마을이 복을 만나 못 만나 지켜봐 주세요, 교회가 들어와서 해가 되고 열려가 된다면 제가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3년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후 열심히 동리 어른들을 섬겼다.

마을에 경조사사가 있을 때면 다 챙기고, 봄, 가을 소풍 때면 다 챙겨드리고 항상 인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마을이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한 전으로부터 전기공사가 시공되어 이웃집에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그곳까지 교회가 도로를 내어드렸다. 동리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교회에서 150m암반을 뚫어 물이 쏟아졌고, 파이프를 연결하여 동리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다. 물은 1급수로 평가되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마을 아래까지 제설작업을 해주었다는 김 목사.

김창룡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는 당시 절간을 인수하는 기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일푼으로 사찰을 인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며 감사기도를 드린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양에 있는 삼막사란 절에서 평신도 회장이었던 이가 신장질환으로 안양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내일아침 6시면 죽는다는 위급하니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이 밤 12시가 넘어서이다. 하지만 달려와서 보니 이미 개입은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때 하나님은 김 목사의 마음을 통해 음성을 주시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중환자실은 들어갈 수 없는데... 당직자와 간호사들은 김 목사에게 몇 시간 후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임종기도를 해 달라고 했



다. 그때 가족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임종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가족들은 지금껏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중환자를 살려 살려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밤 12시가 넘어 이 중환자실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니십니까?

하지만 김창룡 목사는 당시 선교사로 교회에 없었다. 그래서 독산동에 모 교회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불자들의 병을 고치는데 환자들이 놓가 주택을 찾아 수십 명씩 몰려오는데 집이 좁아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자폐아, 언어장애, 정신질환자 등 몇 가지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창룡 목사의 영성목회의 핵심은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주

일예배, 철야예배에 있다면서 2년 6개월간 신구약성경을 강해로 첫 해 6명이 졸업을 시켰다고 한다. 김 목사는 또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목회비전은 첫째가 기도라고 했다. 기도와 실지로 경건한 삶, 영적인 삶, 즉 우리가 말씀으로는 배우지만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교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치유와 회복의 7단계를 소개하고 이 훈련을 통해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며, 세월이 흘러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 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훈련이라고 했다.

365일 계속해서 제목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고, 금요일에는 중보기도에 힘쓰는데,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예배를 두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청년부 오후 4시, 화요일 성령축제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 중보기도의 밤 오후 9시, 토요일 사명자 학교 오후 3시,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오후 4시,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예배와 기도회를 갖는 등 성령충만으로 영성회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4대 비전을 목표를 보면.

1.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이다. 진정한 웰빙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며,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2.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비한 마지막 시대의 추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명자들을 양육하는데 있다고 했다.

3.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한다.

세계열방을 품고 중보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행하여 땅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인데 즉 선교사명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

4. 가정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영적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구습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한 동참의 기회가 주어지며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가정보다 더 편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가는 교회로 벌써 소문이 나 있다.

“중환자실에서 임종직전인 환자를 살려 가족 27명이 예수를 영접”

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그때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영혼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겠는가? 이제 임종이 3시간이 남았는데, 나는 그들을 오늘 처음 보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혼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갈 텐데...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27명을 다 주님을 영접시켰다. 그때가 새벽 2시이다. 그들과 예배를 드린 후 병원에 돌아와 보니, 도저히 가망이 없던 중환자가 살아났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다. 의사가 목사님 기도를 받게 많이 하셨나 봐요 하고 묻는다.

결국 중환자가 살아나고,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다.

을 주읍소서하고 간구했다.

화성시 정남면 첩첩 산골, 성도들 중에는 인생의 막장에서 김창룡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병들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불자들을 치료시켜서 기존교회로 인도해 주었지만, 그들은 기존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김 목사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교회가 이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상처받고 이곳을 찾아온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자폐증 환자들, 언어장애자들, 정신질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김창룡 목사의 비전은 200명이 되면 50여 명을 묶어서 또 하나의 개척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

축 제10회 성노회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오상열 목사 (송리교회)



반민규 목사 (백호살림교회)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유은주 목사 (지구촌교회)

2013년 춘계 성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대한노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호7층)
☎ 031) 424-7612,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개성공단 폐쇄가 김정은에게 뜻 하는 것

북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양건이 4월 8일 개성을 방문한 당일 개성공단 잠정폐쇄를 선언하고 4월 9일 54,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지 25일 만 인 3일 오후개성공단에 잔류했던 우리인원 7명이 북이 요구하는 3월분 북 근로자 임금, 소득세, 통신료 기타 수수료 등 1300만 \$을 일시에 지급하고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됐다.

이로서 2004년 12월 노무현과 이해찬 정동영 주도하에 퍼주기 창구로 개설 된 개성공단이 8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됨으로서 우리는 123개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 반면, 北은 5만 4000명이 풀지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들의 부양가족 30만여 명의 생계가 막연해졌는가하면, 67억\$ 남북교역(MB 정부 5년)창구가 닫히고 김정은의 연간 1억\$ 현찰 빨대가 막혀 버린 것이다.

북이 이런 손실을 무릅쓰고 '최고존엄'을 모독한다는 트집을 잡아 개성공단을 폐쇄 한데에는 무엇보다도 원시 부족국가 씨족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김정은 3대 후계체제가 주민들 가운데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이라는 대형 통풍구를 통해서 견갑을 새 없이 불어 닳히는 초코파이 바람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으로 본다.

실제로 북괴는 최근 개정된 노동당 규약(2012.4.12)에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적 사상 조류들을 반대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체제에 위협이 되는 잠사상 황색바람 차단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김정일은 일찍이 신년사(1999.1.1)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사상적 대결을 동반한다."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황색바람도, 사소한 비 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듯히 치고 적들의 내부 와해책동에 최대



한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신년사에서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비명을 지르기에 바빴고, 2013년 신년사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

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사상통제 강화조치에 우선을 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5월 1일 소위 메이데이에 인민보안부(경찰)과 내무군(국경방위수비대)을 방문 "敵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궂게 버리며, 탄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를 무자비하게 소탕해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과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5만 4000여 근로자를 타 지역에 집단배치하고 적대분자(敵對分子) 취급을 해 가면서 사상개조작업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이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코파이 혁명'을 사전에 봉쇄 차단하기 위한 교육자책이었던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괴집단의 습성에 비춰 초대형 인질극을 벌일 급박한 상황에 사전 대비하여 입주업체 철수 및 우리국민에 대한 귀환명령은 불가피하고도 매우 적절한 조

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체질과 반체제 성향이 몸에 밴 좌편향 야권 종북세력에게는 북괴의 입장과 주장에 동조하여 북괴보다 더 격렬하게 정부를 비난하고 개성공단 철수업체와 근로자를 앞세워 대중을 선동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설 명분과 호기로 삼아 장외투쟁으로 연결하려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남갈등을 촉발하려는 김정은 수작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와 손실을 보게 된 개성공단철수업체들은 핵전쟁공포와 전쟁위기를 조성해가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일방적으로 출입을 봉쇄, 근로자를 철수, 공단을 폐쇄, '초대형 인질극'까지 벌이며 한 북에 대한 반감이나 원망보다는 업체철수 및 귀환명령을 내린 정부를 매도하는 태도를 보여 일종의 스톱홀

럼신드롬을 나타내는 것은 유감이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정은이 교육자책의 아픔을 드러낸 1일자 노동신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이 격정해줄리 만무함으로 손해를 본 것은 '남조선뿐'이라고 논평"한 기사를 다하면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습우화를 연상하면서 쓴 웃음을 짓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와 손실을 보게 된 개성공단철수업체들은 핵전쟁공포와 전쟁위기를 조성해가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일방적으로 출입을 봉쇄, 근로자를 철수, 공단을 폐쇄, '초대형 인질극'까지 벌이며 한 북에 대한 반감이나 원망보다는 업체철수 및 귀환명령을 내린 정부를 매도하는 태도를 보여 일종의 스톱홀럼신드롬을 나타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정은이 교육자책의 아픔을 드러낸 1일자 노동신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이 격정해줄리 만무함으로 손해를 본 것은 '남조선뿐'이라고 논평"한 기사를 다하면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습우화를 연상하면서 쓴 웃음을 짓게 된다.

논설위원 백송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김진태 의원의 감동적 연설을 방해한 자들 아직 국회에 있는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서 되살려 국가改造작업해야 한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과 의사진행발언에서 대정부질문과 의사진행발언은 정말 멋있었다.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은 논리정연하고 송곳 같았으며 신념에 찬 연설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는 감동적이었다. 더불어 수백만을 굶겨 죽이는 3대 세습독재, 국제강대국체제가 입만 열면 남한불바다협박을 외치는 한반도에서 민족이단세력의 핵도발협박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의원의 이발언에 고성과 야유를 퍼붓고 소란을 피운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가?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또한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고 통일부 장관을 꾸짖은 자와 유류상증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었 것이다. 더우기 국회의사진행을 맡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부의장은 이 자들의 방해책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5000만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회에서 조차 뻔뻔스럽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우국연설에 야유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가리끼리, 지하에서는 또 얼마나 노골적으로 종북, 이적, 반미행위를 할까"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이런 자들은 당장 국회에서 내쫓는 것이 당연지사며 북으로 추방해야 할 세력임에도 아직도 이들이 때를 지어 고개를 뻗뻗하게 쳐들고, 민주화, 개혁을 외치고, 국법을 만들고, 국가기밀을 다루고, 혈세를 주무른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종북판사, 개뼉 없는 검사, 특정 변호사들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댓금을 달은 우국지사들에게는 악랄한 선거법 위반죄를 뒤집어 씌워 가슴에 피멍을 들이면서도 대한민국체제를 비방하고 3부자세습 강대국체제(6.25도발, 300만아사, 대량살상무기, 동족협박)를 두둔하고 옹호한 네티즌, 국회의원, 공무원, 교사, 문화계, 언론인 등등 종북, 친북, 반미, 폭력노조, 불순세력들에게는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법원이 30~40년전 간첩사건 연루자를 무죄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가당찮은 것거리다. 수십년전(북의 무력도발이 계속됐고 북한보다 못살던) 활동과 인간의 마음을 추론해 재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김진태 의원 발언을 방해한 국회의원 상당수가 과거 위수친지검동, 주사파, 이른바 PD, NL계열 출신들이다. 국회내 종북세력이 과거 간첩사건 연루세력 인사들이거나 이들과 상당수 교류했거나, 그들의 사주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기성종북세력들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이 자들이 이석기, 이정희, 임수경 등 신흥종북세력을 차출해 국회 입성시켰을 것은 뻔하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종북정치세력(민통당, 통합진보당)들이 다시한번 대한민

국을 점령해도 좋다는 말인가? 운동권, 특정지역 출신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과거 학원가에서 종북 국회의원들과 활동했던 동질성을 떠올리며 오늘날 간첩사건, 과거 간첩사건에 솜방망이 판결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 검찰, 특정 변호사단체에 물건 데 우국지사, 새누리당, 대북정보기관에게는 엄격하고 간첩들에게는 관대한 판검사들 조국은 어디인가? 그리고 간첩들을 옹호하는 특정 변호사들은 강대국체제를 공부했는가? 공산법이 국가최고상위법이며 국가보안법은 공산법의 하위규정인가?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미 박물관으로 사라진 유물인가? 민족, 역사 정의에 추상같아야 할 기관, 법조계가 종북, 반국가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대한민국을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과거 노무현 탄핵시 광풍보도를 하고, 과거 간첩사건연루자들이 해괴하게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특검으로 다루고, 국정원 댓글사건은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고, 개성공단기업(적대세력에 달려제공)철수는 특별조계를 하면서... 김진태 의원의 피끓는 구국의 말씀은 쥐꼬리만큼 다됐다. 대한민국 역사 정의와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려는 일부 방송, 신문, 포털, 인터넷체들의 본사는 평양에 있는가?

하기사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종북 국회의원들에게 못매질당하고 법원(종북판사들이 우글거리는), 검찰에 의해 수색당하는 세대에 대통령,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 행안부 등 공안, 수사당국이 무슨 힘이 있겠나만은 5000만 국민은 3부자세습 강대국체제의 대량살상(핵)협박속에 있으며, 250만 동족들은 여전히 북한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사려한다면 종북세력적결을 위한 국보법 강화, 특정세력(지역)정화 등 국가개조작업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리라고 본다.

외중에 김의원의 대정부질문과 명연설은 종북중앙을 찢른 정의의 매스, 호국상식의 명처방, 암울한 우국지사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희망의 향기였다.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연히 할 말을 한 것 뿐인데 1000여개의 격려성 댓글이 달렸다.

〈김진태 의원의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요지〉

- 과거 민주당이 제기한 "안풍, 총풍"의 국정원개입의혹사건은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반면에 한나라당이 제기한 "안기부 도청의혹사건"은 범죄내용 밝혀져 기소됐다.(민주당은 무고, 한나라당은 정당한 의혹제기)
-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민주당이 차란을 들이받는 등 성폭행범이 하는 짓거리를 했으며 해당여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 그랬다는데 국정원직원이 신분을 밝힐 수 있는가?
- 국정원 여직원 댓글 120여개 중에 박근혜 후보 지지, 문재인 후보 비방한 것 있는가? 대

부분 북한을 비판한 글이다.(당연한 직무수행)민주당이 보호하려는 인원은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 "수사외압" 운운, 당력을 총 집중해 권운회를 지키겠다는 데 해당 국정원 여직원도 호남출신이다.

경찰에 근무하던 호남의 딸이고 국정원에 근무하던 호남의 딸이 아닌가?(지역감정 해소해야 할 야당지도자가 불을 붙이고 있다.)

● 지난 대선직전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강남사무실에서 불법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발견된 국정원 여직원 외에 나머지 69명은 어디에 있는가?(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이 총리에게 질의한 요지〉

● 북한대남전략의 70%가 대남심리전 "우리 민족가끼리"는 대남심리전 핵심전초기지인데 유사한 북한의 대남심리전 사이트가 88개 이르고 이를 받아 전파하는 남한내 파과단체 사이트가 그 열배에 이른다.(김정일 사진과 북한의 선전 선동문구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범민련 남북본부 공식사이트' 예)

● "우리민가끼리"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확보한 불순분자들의 명단을 연계시키면 종북명단이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날 것이다. 어니니미스의 우리민족가끼리 가입자 명단공개는 종북, 고정간첩을 색출할 천재일우의 기회다.

● 국정원, 기무사, 사법기관 등이 공조하는 등 합동수사기관을 꾸려 종북세력을 철저히 색출할 것, 그러나 대공부서는 지금 수사 인력이 30%이상 감축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기피부서이고, 수사능력이 뒷걸음 치고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김진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한 요지〉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라란 말이 나온다. 내부의 적이 그림판 더 무섭다는 말이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키 리졸브(Key Resolve)를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이라고 매도했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격심사를 통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원의 국회의원 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에도 제안한다.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그런 식으로 (진보당) 옹호하지 말라, 물론 이해는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김정은에 대해 예를 갖춰 호칭을 붙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스스로 이 땅을 떠나라.



김진태 국회의원

성공한 사업가로 세워진 선교사 최웅섭 이야기

KBS-1TV <글로벌 성공시대>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로
비즈니스선교의 비전과 해외 사업의 꿈을 품은 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창의적 접근 지역을 여는 지혜로운 열쇠이자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선교'의 교과서가 되어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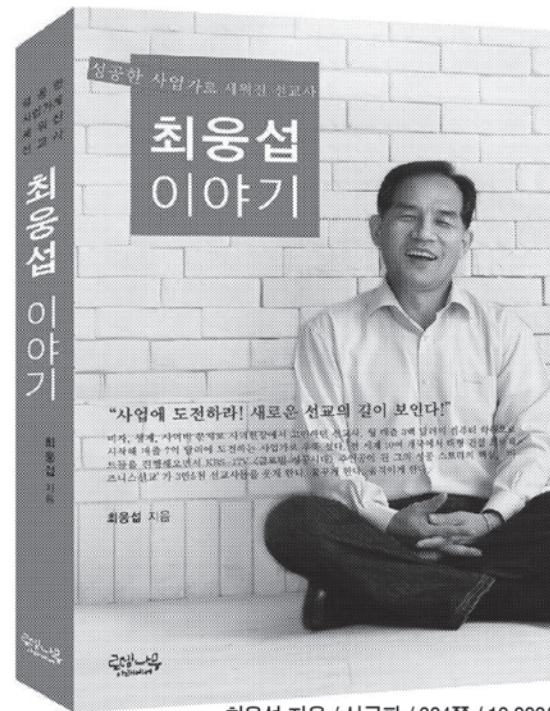
지은이 최웅섭

사람을 기본 좋게 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다. 호방한 웃음에 작은 눈이 더욱 작아지고 눈꼬리마저 더욱 치지고 마는 표정도 그러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호호한 표정으로 귀 기울여주는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12년간 군인 시절을 보냈다는 이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살가운 느낌이 드는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2년간의 군복무 후 복학한 신학교 시절,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를 섬겼고,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는 강도사로 일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교회 부교역자로 활동하던 중 농촌각 신세를 면하고자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등록, 당시 터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바울선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해왔다.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 외에도 현재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주도해오고 있다. (주포유글로벌테크 대표이사 및 회장인 동시에 포유강학재단 이사장, 포유국제NGO재단 이사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제3총상위원장 지회장, 대신총회신학교 이사, 한국인터넷 선교학회(SWIM) 공동회장 등이 그것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선교총괄목사로 평촌 새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비즈니스선교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강의와 순회선교를 해오고 있다.

사업에 도전하라!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인다!

비자, 생계,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3만5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웃게 한다. 꿈꾸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최웅섭 지음 / 신국판 / 304쪽 / 13,000원
ISBN 979-11-950094-0-4 03230
도서출판 <로템나무아래에서>

〈서평〉

이제환선교사 협의회 대표: "책을 읽는 순간, 낙시바늘에 물린 것처럼 찢어지고 있다. 다 읽고 난 마음은 후련했다. 어떤 여로를 생수를 만난 것 같았다. 현재 선교 전략에 비즈니스선교는 뜨거운 감자였다. 마음은 있지만 어느 한 가지도 그 모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선교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교과서처럼 읽어야 할 책이다. 비즈니스가 곧 선교일 수 있다는 가슴승과 비즈니스를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그 관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선교사들의 삶과 성공적인 사역의 안내를 돕는 멋진 책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멋진 사역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김무성 PD, KBS-1TV <글로벌 성공시대> 연출가: "그의 발명은 '불의 나라 회장'이다.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지은 별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불꽃과 같은 삶이기에 이 별명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아 주신 사명에 즐거워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삶, 사업이든 선교든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많이 생겨나길 기원한다."

박진석 목사 기쁨의교회 담임목사: "이 책은 정말로 성공 스토리만 다루고 있지 않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내적 갈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현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선교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교지의 혹독한 현실과 사역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종서 목사 평화선교교회 담임목사: "비즈니스선교는 앞으로 남은 3천여 미전도 종족을 향해 꼭 필요한 선교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번방과 종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현상에서 일하는 크리스티안들을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삶의 증거이고 간증이다. 꼭 읽어서 열매를 맺을 하나님께의 위대한 사역의 초창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빛난 순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현도선교사, 브라질 상파울로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비즈니스선교는 21세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선교 통로로 발돋움하고 그 자체가 선교다. 낯이 갈수록 선교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평신도 선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선교 역시 어려워 가고 있는 선교 환경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웨신 경천노회 제180회 정기노회 및 임직예배 드려

웨신, 총회회관 건립 3년 목표 5억 기금마련을 위한 위원회 발족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4월 12일(금)오전 11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24 영광교회(조강수 목사)에서 제180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4부 강도사 인허식, 4부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1부 개회예배에 노회장 장창운 목사 인도로 서기 성용구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설교에서 마16:16~24절을 인용 “예수를 따르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했다.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서두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자는 베드로와 같이 바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하고, 바른 신앙고백을 가진 자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천국 열쇠가 약속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키이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바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 신앙고백이 있는 자는 천국 열쇠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면 바른 신앙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바른 신앙고백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신앙고백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튼튼하게 지켜 주신다며 바른 신앙고백으로 승리하는 노회와 교회가 되자고 했다.

이어 2부 성찬예식에서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 집례로 이주홍 목사(영광교회)가 기도를, 조강수 목사는 마26:26~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피”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분병과 분잔으로 성찬이 진행되어 집례자 조강수 목사(부노회장)가 축도했다.

3부에서 경천노회 제180회 정기노회가 노회장 장창운 목사의 사회로 개회 선언되고 웨신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는 총회장 이재갑 목사를 대신하여 경천노회 제180회 성노회를 축하하고 총회의 소식을 전했다. 신 총무는 총회회관 기금조성위



원장 조강수 목사(총회서기)를 소개하고 3년 이내 건립 100평을 기증 5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3.4층 빌딩을 구입한다는 방침이라며 노회와 교회가 기도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5월 17일(금)오전10시부~18일(토)오후 2시까지 1박 2일간 영입목회자, 강도사 연수교육이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에서 진행되며, 6월 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총회회관을 목적으로 영성집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순채택을 비롯 각부보고가 있은 후 강도사인허식예배가 진행되어 회계 송정숙 목사가 기도를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는 “예수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경천노회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이날 “이지현, 이두원, 김수연, 박정예, 이정구, 김선화, 변승순”들을 웨신총회 경천노회의 강도사가 된 것을 선포했으며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우재 목사의 권면이 있은 후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 축도로 강도사 인허식을 마쳤다.

이어서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목사임직예배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중식이 있은 후 오후 2시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서기 성용구 목사 인도로 시작되어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가 기도를, 회계 송정숙 목사가 성경봉독(잠 25:13절)하고,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임직자들

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문을 보면 충성된 일꾼은 보낸 이에게 열매를 맺고 있다고 했다. 바로 사명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1)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했다.

2) 충성된 일꾼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했다. 3)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신다. 속4: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 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설교했다.

이어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이주혜, 유동호, 김공래, 유형진 강도사를 호명하고 목사안수 서약식과 안수기도, 성의착의, 악수례를 갖고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천노회의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임직패를 수여했다.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는 “목사는 영



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때만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의 욕심으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하”했다.

또한 김성옥 교수는 “웨신총회와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더욱 깊고 돈독한 관계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며 경천노회와 목사안수를 받은 임직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여 인류에게 헌신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인류에게는 존경을 받고, 우리 민족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지도자, 이런 목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와 웨신총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웨신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 증경총회장 임철환 목사가 축사와 권면으로 임직자들을 축하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목회

라면서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로 헌입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부음을 받았으니 충성을 다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일깨우는 지도자로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신임 이주혜 목사가 고백 축사를, 신임 유동호 목사가 고백 찬양을, 신임 김공래 목사가 신임 인사를 했으며, 서기 성용구 목사의 광고 후 신임 유형진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가 폐회됐다.

한편 안수위원장 장창운 목사, 안수위원 조강수 목사, 성용구 목사, 송정숙 목사, 박종현 목사 등 이다.

제1회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 대성회

말씀과 찬양의 국내 최고 정상의 두 강사가 기도의 바탕 위에 영성의 콤피네이션을 이루어 뜨거운 열기의 도가니 속에서 펼쳐진 오산리기도원

겨우내 움츠렸던 신앙에 성령의 불을 붙였다

열린찬양교회 담임 장창운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 /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학장)와 영광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웨신총회 서기 /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이사장)가 영성의 콤피네이션을 이루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균형 있는 “성령치유대성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여교역자와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며 도전받은 성회가 되었다.

“제1회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 대성회”는 영광교회의 당회장인 조강수 목사가 전국의 200명의 여성 사명자들에게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등 섬기고 헌신을 다한 뜻 있는 대성회가 시작

되었다.

이번 성회는 대회장 장창운 목사와 주강사 조강수 목사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명자들로 은혜가 풍성한 성회가 되었다. 또한 6월3일(월)부터 6월6일(목)까지 “제2의 전국 성령치유대성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기하면 경남 창원에서 은화현 목사는 “제1회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 대성회”가 자신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했다면서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강사 조강수 목사를 부흥강사로 초청을 약속했다.

또한 강동구 명일동에서 목회

를 하고 있는 김갑사 목사는 대종가요 가수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도 이 성회로 많은 은혜를 입었으며, 살아 있는 찬양과 병고침의 기적을 체

험하게 되었다며 대회장 장창운 목사가 매주 토요일 열린찬양교회에서 실시하는 찬양치유사 교육에 참석하여 목회에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중이다.

이번 “제1회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 대성회”는 지난 달 2박 3일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

는 성회가 아닌, 영성의 바탕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 새로운 모델의 성회

가 되었다.

한편 웨신총회의 증경총회장이며,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대학원장인 임철환 목사는 개회예배에 축도를 한 후 매 시간마다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이 균형을 이루고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은혜로운 성회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 웨신총회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궁한 날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 제1회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대성회 광

말씀치유 **대회장** **주강사** **찬양치유**

장창운 목사
웨스트minster 부총회장
대교회 담임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학장

조강수 목사
CBS TV 비전목장 강사
CTS TV 비전목장 소장으로 강사
영광교회 당회장
웨스트minster 서기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이사장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치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경천노회 제180회 정기노회

목사임직 및 강도사인허식 예배

노회장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노회장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서기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회의록서기



장희영 목사
(반석교회)

회계



송정숙 목사
(예찬교회)

임직자



유형진 목사



이주혜 목사



김공래 목사



유동호 목사

인허자



이지현 강도사



이두원 강도사



김수연 강도사



박정예 강도사



이정구 강도사



김선화 강도사



변승순 강도사

춘계 제180회 성노회

- 장소: **영광교회**(당회장 조강수목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4~24
-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노회장 장창운목사)
- 후원: 웨스트minster 총회신학교, 지저스타임즈, CCM기독교문화신문